

미니칼럼



병자호란 삼전도(三田渡)의 수모를 다시 새겨야 하는 이유

임대희 <논설주간>

중국의 오만이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드의 보복 치고는 너무나 속이 드려다 보이는 치졸한 경지(境地)와 현실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4억의 나라다. 조선업(造船業) 1위, GDP 2위, IT산업 3위, 구토면적 4위의 대국이다. 한국의 96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하는 행위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약소한 티베트, 네팔을 억박지르고, 남중국해를 자기 앞마당인양 행세하는가 하면 대만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그 타깃

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 당치 큰 나라가 약소 주변국과 우리나라에는 허세와 위세를 부리면서도 미국과 일본에는 사드의 '사'자도 언급하지 않는다. 강자(强者)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약자에는 호랑이 노릇을 하는 형국이다.

직장에서 가장 불행한 직원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뒷사람에게는 살살이, 부하 직원에게는 폭군 노릇을 하는 비겁한 상사를 만나 재미없이 직장생활을 보내야 하는 불우한 발단들이다.

우리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병자호란'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경험한 나라다. 12월 9일 오늘, 지금으로부터 380년 전인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태종(홍타이지)이 10만 기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유린한 바로 그 날이다.

죽대 없고 나약한 인조(仁祖)는 화친파(和親派)와 척화파(斥和派)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주권국가의 군왕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왕이 삼베옷을 입고 청 태종에게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해대는 삼전도(三田渡)의 수모를 겪은 '병자호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다.

연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치해 하필 군대의 사열 광경을 보도록 한 것을

두고 이것이 우호적인 친선 행사였을까, 아니면 뒤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우리 대통령의 표정을 읽고 있었을까. 이 그림을 본 우리 국민의 심정은 자괴감을 곱씹게 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본 것이다.

치욕적인 역사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론이 분열되면 온 국민이 수모를 당한다'는 사실을.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정사와 부사를 보냈지만 돌아와서는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고했다. 이들은 전쟁보다 당파 싸움에 합몰린 허수아비였다. 병자호란도 곧 청 태종이 들이닥칠 것을 알면서도 화친파, 척화파로 갈려 국토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지정책, 적폐청산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눈앞에 닥친 북핵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강대국에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380년 전 바로 오늘 병자호란의 국치를 되새겨 국론통합의 길을 찾자는 데모는 어찌 보이지 않은가, 그 많은 자칭 애국자들은 어디로 숨어서 보이지 않은가.

사/자/성/어 임대희 주간의 '溫故知新'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자장은 위나라 출신으로 정치 수완이 뛰어나 후에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제상을 지낼 만큼 학식과 두뇌가 명석한 인물이었고, 자하 역시 시문(詩文)이 뛰어나 후세에까지 많은 학문적인 영향을 미친 제자였다.

이런 제자를 두고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장은 매사에 지나침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공자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용(中庸)의 도를 말했던 것이다.

이충영 농

종합평가회 가져

제2대 회장 선출

이충동 10개 아파트단지 한 복판에 위치한 이충영농(이충동 672번지,

대표 이 승만은 지난 11월 30일 반지마을 주민회의실에서 2017년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경작 실적과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이른 봄·여름과 같은 이상기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고, 내년에는 보다 뜻있는 대민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e-편한 세상 아파트 경로당 회장을 2대 영농회장으로 선출했다.

임대희 기자

godhlim135@hanmail.net



어르신 고질병 예방 위한

겨울철 특별체조 프로그램 열강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겨울철을 잘 보내야 한다. 혈관 수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의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많은 계절

이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과 관절염이 대표적인 노인 계절병이다. <사진>

평택시 평생교육 강사인 이우순 체육 강사는 이러한 노인 계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 반지마을 1단지 경로당과 서정동 뚝데케울 아파트 경로당을 순회하며 열강(熱講)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과 호평을 받고 있다. 임대희 기자 godhlim135@hanmail.net

평택게이트볼협회

이충 종합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증설 건의

대한체육회 신하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장(협회장 권 영주)은 지난 11월 말 공재광 시장을 방문, 이충동 종합운동장에 게이트볼 구장을 증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택시에는 읍·면 별로 게이트볼 구장이 10여 곳 있지만 모두 코트가 하나뿐이어서 규모가 큰 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었다.

특히 최근 게이트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평택 서부 지역의 중심지인 이충동 종합운동장 빈 터에 구장 증설을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를 받은 공 시장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해보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임대희 기자 godhlim135@hanmail.net

